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 연구*

오창은(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1. 선군시대 북한 농촌 여성의 위치

2000년대 초의 북한 소설에서는 ‘선군시대’,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중요한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선군시대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가 이뤄진 이후의 시대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인민군대를 중심으로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¹⁾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통치이념으로 ‘인민군대의 영웅성’을 강조하는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8-411-J03301).

1) 이 어구는 ‘선군시대’를 논의하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한정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군인들의 혁명적 군인정신 다시 말하여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닮아가는 선군 시대이다. 오늘 혁명군들에 구현되고 있는 주체사상적 내용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감정정서로 되고 있으며 커다란 고무적 기치로 되고 있는 것이다.” 한정길, “선군시대 혁명군가들에 구현된 사상예술적특성,” 『조선예술』, 12월호(2004), 56쪽.

‘군대 우위’의 정치이념이다. 북한에서는 선군정치가 1995년 1월 1일 ‘다박술 중대’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²⁾

남한의 연구에 의하면,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97년 12월 12일자 『로동신문』에서라고 한다.³⁾ 이후, 본격적으로 선군정치에 대한 의미규정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1999년 6월 16일자 『로동신문』에서 ‘선군정치’는 “△ 인민대중중심의 인민적 정치 △ 군대이자 당이고 인민이자 국가라는 혁명철학에 기초 △ 주체적인 힘으로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자주적 정치 △ 혁명의 미래를 담보하는 선견지명 있는 정치 △ 제국주의와의 사상적 대결, 군사외교적 대결, 정치외교적 대결을 승리로 이끄는 필승의 담보 △ 사회주의사회의 튼튼한 밑뿌리를 마련하는 위력한 무기 △ 사회주의 건설의 원동력 등”으로 요약했다.⁴⁾ ‘선군’에 대해 연구한 진희관은 “선군정치 용어의 등장은 1997년이며 체계적으로 설명된 것은 1999년도 6월부터라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 시원을 1995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후 설명하고 있다”⁵⁾라고 보았다. 선군사상은 이러한 논의에 비취볼 때 ‘주체사상을 김정일 시대에 맞춰 적용한 새로운 사상’이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체제를 의미하는 상징적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선군시대의 이면에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두운

2)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술언덕에서,” 『로동신문』, 2001년 12월 15일.

3) 정성장,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 특징 연구”(통일부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 2003), 18쪽.

4)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378쪽.

5) 위의 글, 397쪽.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항일 혁명시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일컫는 용어였다.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일본군을 피해 1938년 12월부터 1939년 3월말까지 흑한의 동절기에 100여 일 동안 행군해야 했다. 그 이동 경로는 남패자에서 압록강 연안국경의 북대정자에 이르렀다. 당시 일본제국주의 조선관동군은 ‘동기토벌’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때가 김일성이 항일운동기간 중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시대적 위기, 정세의 위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아 이러니하게도 낭만성이 깃들어 있는데, ‘고난의 행군’을 극복한 이후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⁶⁾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과 1995년 여름부터 연이어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을 일컫는다. 1990년대 중후반의 북한문학에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드물었다. 구호의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정도였다. 하지만, 2000년대 북한문학에서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직접적인 회고가 등장한다. 그 굶주림의 고통은 가혹한 것이었다. 2000년대 북한문학 작품에서 굶주림의 현상이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일종의 금기를 환기함으로써, 현실을 긍정하려는 의도성이 텍스트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고난의 행군’과 ‘선군시대’는 짝패의 형상을 하고 있다. 북한의 논문에서도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데, 전상찬은 ‘선군시대 단편소설 문학’을 ‘고난의 행군’과 연결해 논의했다. 그는 “우리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련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결사

6) 문학예술사전 편집집단 편, 『문학예술사전(상)』(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188~189쪽.

관철의 정신을 발휘한 인간전형들은 례외 없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소유자들”⁷⁾이라며 ‘선군’을 강조했다. 이는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비상체제로 제기된 것이 ‘선군시대’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선군시대’의 이면이다. 북한사회의 공식담론인 ‘선군시대’를 다각도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거시적 관점이 아닌 미시적 접근을 통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전체만을 보려고 하면, 보는 이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타자로서의 북한사회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대상을 미시화해 세밀히 봄으로써 전체를 주체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논자는 북한의 ‘농촌’ ‘여성’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정해 보려 한다. 북한의 농촌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식량난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난이 발생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는 농촌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 생산성 향상 문제는 선군시대의 핵심적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더불어, 농촌여성을 주목하는 것이 체제의 위기 속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의 정체성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김재용은 1990년대 북한 여성소설을 1) 슈퍼우먼 콤플렉스, 2) 민족문제에 갇힌 여성문제, 3) 여성 정체성의 탐색으로 특징지은 바 있는데, 이와 대비해 2000년대 농촌여성의 형상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⁸⁾

7) 전상찬, “선군시대 단편소설문학에 형상된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징,” 『조선어문』, 제1호(2003), 13쪽.

8) 김재용은 1990년대 여성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제가 국가나 민족의 문제와

그간 남한문학에서는 ‘북한문학 속 여성’에 관한 연구가 여성연구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김현숙은 북한문학 형식기에서 1980년대까지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북한문학 속 여성을 연구했다. 이 연구를 통해 김현숙은 북한 여성인물들이 “남성에 의해 주도되는 간접적인 상태, 남성에 의해서 사회나 국가 그리고 김일성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하위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다”⁹⁾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주미는 해방직후부터 1961년까지 북한소설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의 여성문제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북한 여성의 삶이 “여성 자신의 정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¹⁰⁾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최영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근대국가 형성의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여성의 재현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여성상은 매우 두드러진 자발성·당당함과, 강력한 가부장적 예측 하의 이중 구속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측면이 번갈아 나타난다”¹¹⁾한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이상경과 임옥규의 논의도 눈길을 끈다. 이상경은 ‘북한의 공식 여성 정책과 북한 여성의 생활현실

및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1990년대 여성소설의 특징을 1) 슈퍼우먼 콤플렉스와 국가주의에 포획된 여성인식, 2) 민족환원주의와 진정한 연대의 좌절, 3) 현모양처의 탈피와 여성적 정체성 찾기로 계열화했다. 특히, 세 번째 경향에 주목하면서 “여성 정체성 찾기가 결코 민족이나 국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1990년대 초 북한소설에서 여성문제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징후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김재용, “북한문학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250~259쪽.

9)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1집(1995), 189쪽.

10) 이주미, “북한문학을 통해 본 여성 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제8집(2001), 43쪽.

11) 최영석, “여성 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 연구』, 제23호(2004), 316쪽.

과의 갈등'을 문학 작품을 통해 추적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여성의 생활을 고찰한 후, '고난의 행군' 이후 오히려 “공식적인 것, 남성적인 것, 기존의 것들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¹²⁾ 본격적인 여성문학의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했다. 임옥규도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인 1997년부터 2006년까지의 『조선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모성·조국애를 검토했다. 그는 최근에는 “전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적 면모”도 드러나고 “여성의 사회적 위상도 향상”¹³⁾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들 연구 경향을 종합해 볼 때, 북한문학 속에 형상화된 여성상은 국가의 공식담론체제에 포섭되어 있으면서도, 최근에는 여성 정체성과 개인주의적 면모를 보이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창유의 주장에 의하면, 선군시대에 요구되는 북한문학의 과제는 “수령형상소설들과 선군의 현실에서 제기되는 절실하고도 의의 있는 문제들을 반영한 훌륭한 작품들을 보다 많이 써”¹⁴⁾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문학적으로 형상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북한문학에서 형상화는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흐름의 합법칙적 과정을 생활 그대로 표현하는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논리는 “구체적 생활에 바탕”을 두고서 “행동과 사건, 성격발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¹⁵⁾ 따라서, 형상화의 원리를 분석하기

12)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호(2007), 379쪽.

13)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모성·조국애 양상—『조선문학』(1997~2006)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8호(2007), 362쪽.

14)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조선문학』, 3월호(2008), 22쪽.

15) 한수은, “형상의 논리와 진실성,” 『조선어문』, 제1호(2000), 13쪽.

위해서는 주체가 생활과 맺는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논의가 가능하다. 주체가 처해있는 생활의 흐름을 파악한 후, 그 속에서 북한 농촌 여성의 형상화가 어떤 이념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형상화와 관련해 관심을 가질 부분은 2000년대 북한 농촌 여성이 처해 있는 ‘생활의 흐름’이고, 그 흐름 속에서 주체에게 합법칙성이라는 이데올로기로 강제되는 ‘선군시대’라는 담론이다.¹⁶⁾ 북한문학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를 통해 북한이 처해 있는 생활의 구체적 현실을 분석할 수 있다. 북한 문학 이론에서 형상화의 문제는 생활의 흐름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다. 형상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물의 사상감정(전형)과 생활의 문제(선군시대)의 조응 방식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선군시대’를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페미니즘 연구자들의 관점에 의하면,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관점은 효과의 측면에서 군사주의의 영향을 논한다. 군사주의가 여성의 삶이나 일상에 미친 영향을 중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군사주의의 동력으로서 성별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해 논한다. 이 입장은 남성가부장제를 중시해, 젠더가 군사주의의 생산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양상을 분석하려

16) 전이련은 선군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 여성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로선을 높이 받들고 여성군인으로서 충대를 직접 틀어쥐고 조국보위초소에 서 있으며 충 잡은 군인의 영원한 길동무-여성혁명가의 영예를 빛내이며 남편과 한 전호가에서, 그리고 병사들의 다심한 친어머니, 친누이가 된 심정으로 그들을 물심량면으로 원호하면서 선군시대의 참다운 생활을 창조해 가고 있다.” 전이련, “선군시대 여성들의 생활을 반영한 가사문학의 사상주제적 특성,” 『조선어문』, 제1호(2003), 15쪽.

든다.¹⁷⁾

논자는 북한문학의 현재를 성적(gendered) 측면에서 가늠해보고, 선군시대에 북한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기본적으로 선군이라는 용어는 군대를 앞세운 것이고, 군사주의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선군시대는 ‘남성성’이 강조되는 시대임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사회주의국가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성 중립적(gender neutral)이었다면, 북한사회가 주창하는 ‘선군시대’는 ‘남성성’을 선명히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러한 시기에 여성의 위상과 역할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의 공식담론 체계와 길항하는 양상을 논하고자 한다.

2.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들

조인영의 “한 녀인에 대한 추억”¹⁸⁾은 ‘고난의 행군’에 대한 직접적 회고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개인)의 일상에 개입하는가를 보여준다.

협동농장경영위원회 기사장인 ‘나’가 ‘만평들’의 ‘토양분석표’을 보고 놀라는 장면에서 소설은 시작된다. 만평들은 ‘내’가 7~8년 전에 연호농장 기사장을 하면서 관리하던 곳으로, 그곳의 “유기질 함량이 예상외로 높”게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연유를 캐던 ‘나’는 만평들이 변음전 어머니의 노고가 깃든 곳이라 ‘변음전들’이라고 불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를 계기로 ‘나’는 10여 년 전 연호 마을의 상황을

17)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서울: 교양인, 2006), 246~247쪽.

18) 조인영, “한 녀인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9월호(2005).

기억 속에서 끄집어낸다. 이 소설은 바로 이 부분에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기억의 서사화로 이어진다. 그 당시 ‘나’는 연호농장에서 기사장으로 있었는데, 농장 총회에서 “땅하고만 씨름하지 말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일군”이 되어달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비판이 달갑지만은 않았지만, 평소에 눈에 띄지 않던 “키가 자그마하고 체소한 가냘픈 인상의 모판관리공 녀인”이 “짜내는 듯한 모기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었기에 신중히 대할 수밖에 없었다. 모판관리공 연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힘겹게 ‘나’를 비판한 여인이 바로 변음전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태도를 바꿔 “책에서 본 유모아 몇 대목쯤 잊지 않고 있다가 휴식참에 이야기” 하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려고 노력했다. ‘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무엇보다 여인들의 수고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여인들은 끼니 걱정, 농사 걱정, 비료와 농사 물 걱정까지 하면서 수척해진 모습을 보였다. ‘나’가 증언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겪은 고통은 다음과 같다.

행길로 몇 걸음 옮기다가 바람막이바자너머로 변음전의 모습을 눈주어 보던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보온나래 두루마리를 안고 걸어가던 그는 무척 힘에 겨운 듯 눈을 꼭 감고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떼는 것이었다. 때식을 변변히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목격한 나의 마음은 아릿하였다.

관리위원회에서 알아보니 그는 분배식량을 적지 않게 탔다고 했다. 그런데 령길도로관리원인 남편과 한 직장에 다니는 로동자세대들이 식량난을 겪게 되자 고루 나눠주었다고 했다.

아니 식량을 퍼 주고나면 어떻게 한해농사를 짓는단 말인가. 나는 은근히 민망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자기보다 이웃을 먼저 생

각하는 그 가혹한 마음씨에 고개가 숙어졌다.¹⁹⁾

끼니를 굶었던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1990년대 북한문학에 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한 녀인에 대한 추억”은 끼니를 잊지 못해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여인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도 농사에 모범적인 변음전 여인이 행길에서 “무척 힘에 겨운 듯 눈을 꼭 감고 서 있다가 다시 걸음을 떼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가 이렇듯 굶게 된 사연은 ‘노동자 세대들에게 식량을 나눠’ 주었기 때문이다. 이 진술의 이면에는 ‘고난의 행군’ 당시 노동자들이 농민들보다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즉, 농민들이 끼니를 잊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줘야 했던 것이다.

2000년대 초순경까지만 해도 ‘굶는 노동자·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은 드물었다. ‘고난의 행군’ 시절의 식량난은 일종의 금기로 간주되었기에, 굶주림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보다는 우회적으로 고통을 에둘러 표현했다. 예를 들면, 김성희의 “룡산의 메아리”²⁰⁾는 다음과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의 어려움을 조심스럽게 기술하고 있다. 룡산목장은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이룬 곳으로, 처음 이곳이 생길 때는, 달구지 한 대 없고 돼지우리 하나 변변히 갖추지 못 했었다. 그런데 룡산목장이 모두의 헌신 속에서 종축기지로까지 발전했다. 그런데, 한 때 풍성했던 ‘룡산’이 ‘고난의 행군에 이은 강행군’으로 돼지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급기야 룡산목장에서도 “닥쳐올 현실에 대처하여 돼지 대신 염소, 계사니, 오리 등 풀 먹는 짐승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19) 위의 글, 41쪽.

20) 김성희, “룡산의 메아리,” 『조선문학』, 5월호(2001).

제기된다. ‘나’와 차옥 언니를 비롯한 사양공들이 “처음 한발자국씩 양보하다가 차츰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아닌가”라면서 종축돼지를 줄이는 데 반대한다. 둘의 반대에 사람들은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찢찢 매는데 돼지는 뭘 먹인다구 저래?”라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한 때 대표적인 종축기지 역할을 했던 룡산목장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도 “농장대학 졸업생이고 당원”이면서 “일 잘하고 인물 잘 난” 차옥 언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종축 돼지들이 지켜지고, 결국 도민일보 “풀과 고기를 바꾸는 길에서”라는 기사가 게재되는 성과를 낸다. “룡산의 메아리”에서도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가 ‘종축돼지 감축’이라는 비유적 사건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2005년에 발표된 “한 녀인에 대한 추억”에 이르러 ‘고난의 행군’ 시절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진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즈음에는 ‘고난의 행군’이 과거로 기억된다. 이는 ‘고난의 행군’이 동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기억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 고통은 과거로 회상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통은 직접적으로 진술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회피된다. 그러한 회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진 시기를 2005년 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005년 즈음에 이르러서야 북한사회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혹은 공포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공포를 상대화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난의 행군’ 시기에 변음전 여인의 형상이 영웅적으로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변음전 여인은 토지개혁 때 부여 받은 ‘달배미논’에서 전쟁시

기 아버지가 숨지는 고통을 당했다. 이러한 사연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헌신적으로 논을 보살피 ‘왕가물’에도 불구하고 ‘모판과 논 자리를 잘 관리’해 냈던 것이다. 변음전 여인은 “땅과 곡식을 대함에 있어서 못사람들과의 류다른 예린 정서”²¹⁾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소설은 변음전 여인의 헌신성을 기리기 위해 ‘만평들’을 ‘변음전들’로 고쳐 불러 기리고 있다. 변음전 여인의 각별한 헌신성은 ‘고난의 행군’ 시기의 위기 극복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고통의 기억’인 것이다.

변음전 여인의 형상은 국가기구에 의해 ‘총동원 체제’에 포박된 북한 여성의 상황을 보여준다. 전시와 같은 험난한 시기에,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헌신’한 자에게 ‘영웅의 명예’가 주어진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여성=영웅(남성)’이 되는 길을 예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이 남성과 동일자가 됨으로써 위기극복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상상은 여성을 ‘남성적으로 젠더화’하는 것과 같다. 국가기구의 위기 상황에서 여성의 젠더적 개별성은 용인되지 않는다. 국가가 위기 담론을 통해 ‘국민 총동원’을 주창할 때, 그것은 국가기구가 처해 있는 실재하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통합’의 기회일 수도 있다.²²⁾ 그 전환의 지점이 2005년 즈음이었음을 “한 녀인에 대한 추억”을 통해 확인

21) 조인영, “한 녀인에 대한 추억,” 43쪽.

22) 민족주의와 사회통합의 관계를 조지 모스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른다고 주장함으로써 민족주의는 고결함이 광범위한 합의를 얻어내는 것을 도왔던 것이다. 이제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종교는 계급과 상관없이 사생활을 인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경제적 위계와 사회적인 위계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국가의 성원이라는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서울: 소명출판, 2004), 315쪽.

할 수 있다. 북한의 정치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담론을 환기함으로써 ‘선군시대’라는 새로운 통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즉, 2000년대 북한 권력기구의 통치 양식의 일 부분을 ‘농촌여성의 형상화’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공포와 강박, 그리고 사로잡힌 여성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산력 향상과 일상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처녀의 형상에서 그 상처의 한 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윤경찬의 “넓어지는 땅”²³⁾에도 ‘고난의 행군’ 시절의 식량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소설 속에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작업반장으로 선출된 진옥은 “자기들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해 나라의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는 죄의식으로 자책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생활을 위협했던가, 통강냉이로 끼니를 에우고 그것마저 떨어진 집들을 위해 크지 않은 식량자루를 털어 내던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 나 벌로 나가군”²⁴⁾ 했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처녀반장 진옥이 ‘고난의 행군’ 시절의 트라우마(trauma)로 인해 자신에게 온 사랑마저도 거부한다는 데 있다.

토지정리 사업을 위해 동원된 ‘불도셀 책임운전수 강철호’는 진옥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한다. 철호는 ‘품이 적게 들면서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도로 옆의 기본포전을 거부’하고 ‘제일 구석진 막대골에서

23) 윤경찬, “넓어지는 땅,” 『조선문학』, 10월호(2001).

24) 위의 글, 48쪽.

불도젤의 첫 동음을 올리자고 제기'할 정도로 적극적인 인물이다. 하지만, 진옥은 '고난의 행군' 이후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지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자. 그전처럼 생활의 즐거움을 향유할 권리가 나에게 없다"라고 되뇌면서 일에만 몰두한다. 진옥의 얼굴에서는 "청춘의 발랄한 웃음과 생신한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걱정스러운 표정"만이 떠날 줄을 모른다. 강철호는 진옥의 이러한 각박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동무말처럼 제가 현실에 겁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어요. 제 본분을 다한 그때에 가선 나도 남들처럼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이젠... 제 운명이랍니다.”

“운명이라구요?”

강철호는 기가 막힌 어조로 처녀의 마지막말을 되풀이했다. 언제나 싱글벙글하던 그의 얼굴이 순간 엄해졌다.

“동문 생활의 모든 것을 스스로 희생시키면서 농사일만 걱정하며 사는 걸 강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똑똑히 알아 두시오. 그렇게 '고달프게 살면서 자기 본분을 다하려 한다'는 그건 어리석은 영웅성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동무처럼 인간적인 아름다움마저 희생시키면서 가까스로 지탱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요. 우리 세상은 미래를 확신하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이 건설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굳건해지지요. 그런데 동문 어떤 '운명'에 대해 말하려는 거요.”²⁵⁾

25) 위의 글, 51쪽.

진옥은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그의 일하는 태도는 땅을 “알달복달 다루”는 것과 같다. 생활을 즐길 여유마저 갖지 못한 진옥의 모습은 각박하다. 그 각박함을 견뎌내기 위해 진옥은 “제 운명이랍니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하지만, 강철호는 이에 대해 분명한 반박을 가한다. 그가 보기에 진옥의 태도는 “인간적인 아름다움마저 희생”시키면서 “가까스로 지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버팀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2000년대 북한 농촌 여성의 생상성 향상에 대한 노력은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북한문학의 대표적 수작으로 꼽히는 변창률의 『영근이삭』은 개성적인 인물 ‘홍화숙’을 내세워,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윤리에 기초한 평균주의적 노동평가를 반대하는 홍화숙의 태도가 이전에는 비판을 받았겠지만,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아래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⁶⁾ 이는 농촌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인간형에 대한 형상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김재용은 이 작품에 대해 “새로운 경제관리체제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협동경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도에 대한 모색의 흔적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²⁷⁾

“넓어지는 땅”은 “영근이삭”에 비해 훨씬 강박적이다. 이는 “넓어지는 땅”이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2001년에 발표되었고, 또 2002년 7·1조치 시행 이전의 작품이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

26) 변창률, “영근이삭,” 『조선문학』, 1월호(2004), 55쪽.

27) 김재용, “7·1신경제관리체제 이후의 북의 문학,” 『실천문학』, 가을호(2005), 148쪽.

다. 그럼에도, 강철호는 진옥의 조급한 태도가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이는 강철호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 사실 지금 우리 농촌엔 토지정리보다 더 절박한 일도 많고 당면한 농사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나 당에서는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토지정리에 물질적, 로력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 농촌을 공산주의리상촌으로 꽃 피워 이 땅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시려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지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것이 바로 미래를 확신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시면서 토지정리사업은 농촌에 남아 있던 봉건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이 땅을 로동당시대의 토지, 사회주의토지로 되게 하는 위대한 혁명이라고 하시였지요. 정말이지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정리는 단순히 땅만 넓히는 자연과의 투쟁이 아니라 ‘고난의행군’을 겪으며 일시나마 좁아지고 어두워졌던 일부 사람들의 마음까지 넓혀서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든든히 심어 주는 변혁이라고 할 수 있지요...”²⁸⁾

강철호의 진술은 처녀반장 진옥을 향해 있다. ‘생활을 사랑할 줄 모르’는 진옥은 ‘고난의 행군’이 가한 고통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비관적 인물이다. 이러한 비관적 태도를 극복하지 못하면, ‘강성대국’의 내일이 없다고 강철호는 강조한다. 강철호의 목소리는 개별적인 발화이기보다는 ‘당의 정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강철호

28) 윤경찬, “넓어지는 땅,” 52쪽.

는 땅크병 출신의 제대군인이고 군토지 건설사업소 ‘불도젤 운전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선군시대 노력영웅의 형상에 가깝다. 이러한 강철호의 강직한 태도에 매료되어 진옥이 “사랑, 그것은 벅차고 참된 생활의 거세찬 격류 속에서 미래를 확신하는 강의한 인간들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의 분출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은 두 가지의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넓어지는 땅”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어려움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북한 주민의 일상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나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진옥은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나 별로 나가군”할 정도로 강박증에 시달린다. 그는 스스로 “‘고난의 행군’시기를 잊었는가고 준절하게 꾸짖으며 살아 왔었다”²⁹⁾라고 할 정도로 자기암시적이다. 이렇다보니, “행복한 시절에 대한 눈물겨운 자기 부정”을 통해 일상이 영위되고 있다. 이는 ‘사랑에 대한 부정’이며, ‘공포가 일상을 견디게 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여성의 성적 가치 판단이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가이다. 제프리 워스는 “성적 가치는 폭넓은 사회적 가치들과 분리되기 어려우며, 그 사회적 가치 역시 천차만별이다”³⁰⁾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진옥의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적 가치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개인적 애정마저 자발성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양상은 비극적이다. 이는 북한 사회의 내면화된 공포의식이 이 소설에 투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강철호는 선군시대를 대

29) 위의 글, 48쪽.

30) 제프리 워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옮김(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173쪽.

표하는 남성 화자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당의 의도를 진옥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전달한다. 그는 ‘고난의 행군’ 이후 비관적 태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래일에 신심과 락관’을 심어주기 위해 ‘토지정리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 당의 목소리가 ‘땅크병 출신의 제대군인’인 강철호에 의해 전달된다는 것은 ‘선군시대’의 상징성을 드러낸다. 이는 당의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이며, 현재 북한사회가 군인들(혹은 제대군인들)에 의해 문제해결이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군시대에 인민군대가 위기에 처한 농촌을 구하는 모습은 관습적 일 정도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김명익의 “백로페 날아든다”³¹⁾에서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정연순이 등장한다. 그녀는 농업대학을 졸업한 후 ‘도농촌경영위원회’에 배치 받았지만, 고향 땅 연백벌에서 농업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작업반장으로 일한다. 연순은 눈에 감자를 심어 이모작을 해 내려고 고군분투한다. 겨우 관리위원회를 설득해 감자를 심었지만, 갑작스럽게 내린 눈으로 농사를 망칠 위기에 처하고 만다. 이 때 갑자기 ‘삼자루를 둘러싼 인민군전사들이 구보로 달려와’ 눈을 치워줌으로써 감자농사를 도와주는 극적 상황이 전개된다. 이 정황은 오로지 인민군대만이 위기에 처한 농업을 구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가미된 것이고, ‘선군시대’의 이념을 문학작품에 과도하게 적용하려한 의지 과잉이 낳은 개연성의 결여이기도 하다. “넓어지는 땅”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저돌적 인물인 강철호가 ‘땅크병 출신의 제대군인’인 것도 ‘선군시대’의 이념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구체적 인물 형상으로 볼 수 있다.

31) 김명익, “백로페 날아든다,” 『조선문학』, 8월호(2005).

그런 의미에서 농업생산성 향상에서 농촌 여성은 주체적 위치에 서 있지만³²⁾, 결정적 순간에는 인민군대나 제대군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변부적 인물로 급강하기도 한다. 이는 소설 형상화에서 ‘선군시대’의 이념이 과도하게 적용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이 훼손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0년대 북한의 일부 소설에서 여성은 국가와 민족의 이데올로기적 호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물로 형상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난 이후, 일종의 총동원체제에 직면해서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독자적 논의가 약화되는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³³⁾ 이는 ‘선군시대’에 남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조가 이뤄짐으로써 ‘젠더로서의 여성’이 국민총동원 체제에 복속되는 양상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32) 여성의 주체적 위치가 대지와와의 교감을 통해 형성되는 독특한 소설이 “정향꽃”이다. 이 작품은 쌍둥이 엄마 애숙이의 농사일에 대한 애정이, 대지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낭만적으로 서술한다. “정향꽃”은 여성과 대지를 동화시킴으로써 ‘민족주의적 낭만성’, 독특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김형수, “정향꽃,” 『조선문학』, 4월호(2006).

33) 우에노 치즈코는 ‘국민국가와 젠더’에 관해 흥미로운 언급을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화’와 ‘젠더’의 ‘경계의 정의’를 둘러싼 물음, 즉 ‘국민’이 남성성을 모델로 정의되었을 때 ‘총동원 체제’와 ‘성별영역 지정’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둘러싼 두 가지 방법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참가형(integration)’과 ‘분리형(segregation)’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해가 없도록 말해 두면 양쪽 다 ‘2류 시민’이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25쪽.

4. 혁신에 대한 열망과 이념형 여성인물

김영선의 “불길”³⁴⁾은 선군시대에 부응하는 헌신적 여성상을 제시한 작품이다.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대립,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축으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결까지 얹혀 있어 흥미로운 서사적 흐름을 형성한다.

소설 화자이며 기자인 ‘나’는 샘골마을에서 로력영웅칭호를 받은 류근혁과 여러 번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이 들었다. 류근혁은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에서 영웅적으로 싸웠던 인물’로, ‘거지골’로 불리던 샘골마을을 “집집마다 세 칸짜리 온돌방에다 현대적인 세간들이 그쫘하게 갖추어진 마을”로 바뀌었다. ‘나’는 류근혁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샘골마을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사촌동생 결혼식 때문에 이웃동네에 왔다가 샘골마을을 일부러 시간을 내서 방문하게 된다.

‘내’가 샘골마을을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히 열차에서 신대승을 만났기 때문이다. 신대승은 ‘류근혁이 애착을 가지고 키우던 총각분조장’이었다. 신대승은 ‘나’에게 류근혁의 딸은 아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아버지가 수십 년간 이루어놓은 것들을 모조리 뒤집어엎는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대승과 류은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한 ‘나’는 류근혁과의 정리를 생각해 진상을 파악하려 나선다.

처음 소설은 신대승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말이 이뤄진다. 신대승은 ‘나’에게 ‘자신이 신분조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구분조장이 된 사연’

34) 김영선, “불길,” 『조선문학』, 5월호(2005).

을 이야기한다. 밭이랑을 정리하는 데서 은아와 대승이의 의견이 충돌하더니, 다음에는 최뚝을 없애는 데서 입장이 갈리면서 대판 싸우기까지 했다. 최뚝은 밭두둑에 난 길을 지칭한다. 은아는 “최뚝은 네 땅, 내 땅을 가르던 낡은 사회의 유물”이기에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에 곡식을 심어 낡을 한줌이라도 보태자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신대승은 농사에는 때가 있다면서 반대했다. 신대승이 보기에 지금은 “강냉이 모를 옮기고 한쪽으로 빈 포기를 찾아 보식해야 하는, 고양이손이라도 빌려 써야” 할 만큼 바쁜 때이다. 이때에 최뚝을 없애는 일에 매달리다가는 자칫 농사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대승의 내심에는 류은아가 제대한 지 몇 해밖에 안 되고, 또 농장대학에 다닌 지 이제야 3년 남짓밖에 안 되었기에 서툰 반장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었다. 신대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은아는 최뚝을 몽땅 뒤집어엎고 거기에 강냉이를 심어버린다. 이 때 신대승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도 모욕 받은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에게 이런 사연을 전하던 신대승이 농장일 때문에 자리를 비우자, ‘나’는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에 접근하려고 취재를 시작한다. 먼저, 축산분조를 방문해 신대승과 류은아의 갈등을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초옥이 어머니를 통해 전해 듣게 된다. 은아가 돼지우리를 헐어버리겠다고 나섰을 때, 작업반원들은 은아반장의 겸손치 못한 처사에 불만이 가득했다고 한다. 돼지우리는 은아의 아버지인 류근혁의 공적이 깃들여 있는 곳이며, 그 돼지우리터를 샘골마을 사람들은 톡톡히 보아왔다. 그런데, 은아가 아버지의 공적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샘골 사람들이 쑥덕거린 것이다. 은아와 대승의 첨예한 대결 현장을 초옥이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재현해낸다.

“돼지우리를 왜 헐지 못해 몸살이요?”

“납았어요.”

“납았다. ... 어째서? ...”

대승은 입귀를 일그러뜨리며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은아는 곳곳해진 눈길을 대승에게 건주며 또박또박 그루를 박듯 말했다.

“두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하자면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야 해요.”

대승은 뒤집을 짓고 천천히 은아의 앞뒤를 빙 돌았다.

“동무는 저 돼지우리에 아버지의 땀이 얼마나 스며여있는지 알기나 하오? 그래서 우리 작업반사람들이 저 돼지우리를 보며 어떤 각오를 다지는지 알기나 하오?”

한참 후에 약간 갈린 듯한 은아의 목소리가 대승의 귀전을 쳤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헐어버리자는 거예요.”³⁵⁾

신대승은 돼지우리의 상징성 때문에 허무는 것을 무작정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연중 가장 바쁜 영농기에 최뚝 허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대공사인 ‘돼지우리 새로짓는 문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신대승은 류근혁의 권위를 빌려와 “우리 작업반은 류근혁 작업반장이 있을 때부터 한 번도 알곡생산계획을 드틴 적이 없는 작업반”이었음을 강조한다. 이에 대응하는 류은아의 태도 또한 결연하다. 류은아는 “제가 바로 류근혁의 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라고 외치면서 청년동맹원들과 돼지우리를 몽땅 헐어버리고 만다.

은아와 대승의 대립은 북한사회가 현재 추구하려는 혁신의 방향을

35) 위의 글, 33쪽.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노력영웅이었던 류근혁의 혁명적 전통을 어떤 방식으로 계승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신대승과 류은아의 갈등 사이에 갈무리되어 있다. 신대승은 혁명전통을 이어감으로써 좀 더 온건한 작업반 운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류은아는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류근혁의 뜻을 계승하려 한다. 이 둘은 모두 ‘류근혁이 만들어낸 전통’을 자기 주장의 정당성으로 내세운다. 신대승은 류근혁과 함께 일해 온 경륜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류은아는 “제가 바로 류근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은아의 주장은 북한사회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진술로도 읽을 수 있다. 혈연관계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류근혁-류은아’의 연속성에 대한 승인에 나타나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작품은 류근혁의 뜻을 계승할 수 있는 이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부단히 전진하고 혁신”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담한 결단을 해 나가는 류근혁의 딸 류은아를 후계자로 규정한다.

2000년대 북한 농촌 여성 소설에서 ‘부녀(父女)’의 관계가 혁명적 전통의 계승 관계로 자주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김명익의 “백로페 날아든다”의 주인공인 정연순은 구름봉 작업반장이었던 아버지 정태봉의 뜻을 잇는 혁명적 일꾼으로 그려져 있다. 또, 김성희의 “룡산의 메아리”의 화자인 별이의 아버지도 “목장의 초창기 지배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작품이 박경철의 “이 땅은 넓다”³⁶⁾이다. 이 작품의 주요인물인 류순애는 “불길”의 은아처럼 당찬 여성인물이다. 류순애는 류만식의 외동딸로서, 그만이 진정 “혁명적 군인 정신”

36) 박경철, “이 땅은 넓다,” 『조선문학』, 10월호(2008).

을 지니고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 수 있다는 ‘후계자적 자부심’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전통 속에서 순애는 ‘논에다 콩을 심는 혁신적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불길”에서 신대승과 류은아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었을까. 그 해결과정에 대한 진술은 신대승의 집에서 이뤄진다. 항상 류은아 편에 서 있었던 초옥이가 신대승과 결혼한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초옥과 대승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바로 은아였다. 초옥은 ‘나’에게 그 때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신대승의 우려와는 달리 돼지우리를 헐고 새롭게 짓는 데는 단지 스무날이 걸렸을 뿐이었다. 청년동맹원들이 저녁마다 돼지우리공사장에서 일해 공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영농기의 바쁜 일손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한 것이다. 신대승이 또한 “은아동무의 일숨씨는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든 그를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면서 결국 승복하고 만다. 신대승은 최뚝 없앤 곳에서 강냉이가 800키로나 수확되고, 돼지우리 또한 입체식으로 현대적이면서도 돼지를 곬은 더 기를 수 있게 지어진 것에 감탄한다. 두벌 농사를 하자면 모든 것이 두 배가 되어야 한다는 은아반장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다.

이 소설은 은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어, 은아반장의 행위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결말로 나아간다. ‘나’에게 사건을 진술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신대승이었다가, 다음에는 사료관리책임자인 초옥이 어머니이고, 다시 초옥을 거쳐 신대승으로 넘어가면서 정보의 조합이 이뤄지는 양상을 띤다. 이 소설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독자들은 기자인 ‘나’가 수집하고 조합해낸 정보를 통해 은아의 영웅적 면모에 점차 동화되어 간다. 더구나 초기에 신대승을 통해 접했던 내용이,

소설의 결말에서는 판이하게 다른 반전으로 이어짐으로써 서사적 긴장이 지속된다.

소설의 대미에서 신대승은 “저기 기러기떼 길잡이처럼 맨 앞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처녀가 은아반장입니다.”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한껏 표현한다. 작가 또한 ‘나’의 목소리를 빌려 “낡고 뒤틀어진 모든 것을 불사르며 강성대국건설에로 줄기차게 내달리는 선군시대의 참된 지휘관!”으로 은아반장을 호명한다. 그러면서, 후대들은 앞선 세대가 이루어놓은 공적을 현상유지나 해서는 안 되고 대담하고 크게 혁신해나갈 때만이 참된 계승이 이뤄진다고 진술한다.

“불길”에는 이상적인 농촌여성의 형상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은아는 제대군인이며, 노력영웅 류근혁의 딸이자,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반장으로 그려져 있다. 그는 신대승에게 “치마두른 반장”이라고 다소 경멸적인 호명을 받기도 하고, 작업반원들에게도 ‘아버지의 공적을 무시하는 겸손치 못한 젊은 반장’으로 불린다. 하지만, 은아는 류근혁의 업적을 현상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배가시키는 성과를 낸다. 이 작품은 2000년대 북한문학의 이념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군시대의 표상으로서 제대군인인 은아가, 제대군인출신의 열정적인 리청년동맹비서와 함께 청년동맹원들을 동원해 혁신을 주도했다. 더불어 은아가 스스로를 “제가 바로 류혁근의 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라며, 자신이야말로 류혁근의 혁명적 의지를 제대로 계승할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질 새로운 후계체제에 대한 문화적 정당화 작업으로 읽을 수도 있다.

농업 생산성의 배가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또 동원되는

양상은 이채롭다. 이는 그만큼 북한의 농촌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당당함을 증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여성이 ‘남성과 차이 없이’ 생산성 향상에 동원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 ‘차이 없는 여성’은 바로 북한문학이 표상하는, 혹은 그리고자 하는 이념형이다. 하지만, 그리고자하는 것이 바로 실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간극 속에서 북한문학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도출된다. 선군시대를 옹호하는 여성은 ‘동원된 참가’를 수락한 것이며, 생산성의 혁신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보는 생산력주의를 자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여성의 ‘선군시대’에의 참여는 ‘이데올로기로 포박된 젠더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선군시대의 위기담론과 여성의 자발적 동원

북한의 대표적인 문학이론가인 김정웅은 이전시기 사회주의 문학에서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웠다면, 선군혁명문학은 “내세우고 형상하여야 할 기본주인공은 선군시대의 혁명의 주력군-인민군대”라고 했다.³⁷⁾ 이러한 분명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주의 문학과 선군혁명문학의 관계를 불합하고 있다. 인민군대가 주인공이면서도 선군시대에 맞게 형상화만 된다면 농업근로자나 지식인도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성은 농업근로자로서 농업생산성 강화를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선군시대’의 구현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들 여성농업근로자는 제대군인이나 인민군대의 도움을 통해서

37) 김정웅, “선군혁명문학에서 주인공문제,” 『조선어문』, 제3호(2004), 8쪽.

그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선군시대 농촌여성은 농업생산력 증대의 주인공이면서도, 인민군대에 의존하는 ‘선군시대’의 조력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2000년대 북한문학에서 형상화된 농촌 여성을 통해 북한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을 다음 몇 가지로 계열화해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형상화의 논리에서 주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계열화한 것이기도 하다.

첫째, ‘선군시대’의 이념으로 제시되어 있는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북한 농촌 여성을 형상화한 소설에서는 뚜렷한 내용성을 띠다기보다는 ‘고난의 행군’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공포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공포의 기억이 ‘생산력주의’에 대한 강박으로 구현되어 있다. 김성희의 “룡산의 메이리”나 윤경찬의 “넓어지는 땅”은 여성이 주도해 생산력 증대를 이뤄내야 하는 농촌풍경을 그렸다. 이들은 모두 ‘고난의 행군’의 아픈 기억을 통해 농업생산력 강화라는 과업에 대해 강박증적으로 반응한다. 2005년에 발표된 조인영의 “한 녀인에 대한 추억”에 이르러서야 ‘고난의 행군’에 대한 회고적 진술이 이뤄진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즈음에야 북한사회는 ‘고난의 행군’에 대해 객관화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둘째, 2000년대 농촌 여성 형상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은 북한 여성이 ‘공적 세계’에서는 당당한 농업근로자이기는 하지만, ‘사적 세계’에서는 가정이나 연애 등이 억압된 약소자라는 사실이다. 농업근로 영웅으로서 공적 영역에만 헌신하려드는 변음전 여인의 형상이나(“한 녀인에 대한 추억”), 연애 감정을 애써 외면하려드는 진옥의 형상(“넓어지는 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공적 세계는 인간 삶의 비정상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은 개인의 내밀한 감정보다는 전체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사

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사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많은 부분에서 '고난의 행군'에 대한 공포스러운 기억을 환기하며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가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을 증언한다. 더불어, 1990년대 북한 여성소설에서 '국가와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여성 정체성 찾기'가 이뤄졌던 반면, '고난의 행군'을 겪고 난 이후인 2000년대 여성 소설에서는 '국민총동원체제'에 준하는 여성의 젠더적 동원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여성은 '선군시대'의 이념에 따라 '남성성'을 일상화하거나, '젠더적 재구성'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북한문학이 강박처럼 '남성성'의 신화에 포박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셋째,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이념에는 새로운 후계체제에 대한 상징적 서사가 자리잡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김영선의 "불길"을 거론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련해 징후적 독해가 가능하다. 주요인물인 은아는 노력영웅칭호를 받은 류근혁의 딸로 등장해 '샘골마을'을 새롭게 부흥시킨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은아는 제대군인이며,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여성반장이다. 아버지 류근혁의 뜻을 받들면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이끌어내는 류은아의 형상은 후계구도와 관련해 북한 사회의 이념을 표상한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의 재구성이 '자발적 동원'의 외양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체제의 위기가 '국민의 성격'을 '남성성'(선군시대)으로 고착화하는 양태 속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6년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발표된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여성의 지위에 대한 보장이 이뤄졌다.³⁸⁾ 그러나 가부장적 국가질서 속에

서 ‘여성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국가기구는 ‘총동원체제’라는 비상선포를 통해 일상을 지배한다. 비상상황에서 지배당하는 일상은, 바로 비정상적인 일상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 일상화된 비상상황 속에서 북한 여성의 자발적 동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위기 국면 이후 북한 여성들의 ‘자발적 동원’ 속에서 여성은 점차 ‘2등 국민화’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

현재를 추동하는 힘으로 과거의 상처가 동원되고 있는 사회는 불행하다. 현실에 기반해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을 때, 즉 과거로부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을 때라야 안정된 일상이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군시대’라는 담론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과거에 포박된 담론이며, 북한사회가 아직도 일종의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체제 하에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담론이기도 하다.

■ 접수: 6월 21일 / ■ 채택: 8월 27일

38) 김기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대동, 1997), 18~19쪽.

참고문헌

1. 북한자료

- 김명익, “백로떼 날아든다,” 『조선문학』, 8월호(2005).
- 김성희, “룡산의 메아리,” 『조선문학』, 5월호(2001).
- 김영선, “불길,” 『조선문학』, 5월호(2005).
- 김정웅, “선군혁명문학에서 주인공문제,” 『조선어문』, 제3호(2004).
- 김형수, “정향꽃,” 『조선문학』, 4월호(2006).
- 문학예술사전 편집집단 편, 『문학예술사전(상)』(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 리창유, “선군시대의 요구와 작가의 탐구정신—지난해 하반기도 『조선문학』 잡지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두고,” 『조선문학』, 3월호(2008).
- 박경철, “이 땅은 넓다,” 『조선문학』, 10월호(2008).
- 변창률, “영근이삭,” 『조선문학』, 1월호(2004).
- 윤경찬, “넓어지는 땅,” 『조선문학』, 10월호(2001).
- 전상찬, “선군시대 단편소설문학에 형성된 주인공들의 성격적 특징,” 『조선어문』, 제1호(2003).
- 전이련, “선군시대 여성들의 생활을 반영한 가사문학의 사상주제적 특성,” 『조선어문』, 제1호(2003).
- “정론: 선군혁명 천만리—제1편 다박솔언덕에서,” 『로동신문』 2001년 12월 15일.
- 조인영, “한 녀인에 대한 추억,” 『조선문학』, 9월호(2005).
- 한수은, “형상의 논리와 진실성,” 『조선어문』, 제1호(2000).
- 한정길, “선군시대 혁명군가들에 구현된 사상예술적 특성,” 『조선예술』, 12월호(2004).

2. 국내자료

1) 단행본

- 김기옥 외,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대동, 1997).

우에노 치즈코, 『내셔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서울: 박종철출판사, 1999).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서울: 교양인, 2006).
 제프리 위스,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동진·채규형 옮김(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조지 모스, 『내셔널리즘과 섹슈얼리티』,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서울: 소명출판, 2004).

2) 논문 및 기타 자료

김재용, “북한문학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국가,” 『분단구조와 북한문학』(서울: 소명출판, 2000).
 _____, “7·1신경제관리체제 이후의 북의 문학,” 『실천문학』, 가을호(2005).
 김현숙,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인물 형상화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1집(1995).
 이상경, “북한 여성 작가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17호(2007).
 이주미, “북한문학을 통해 본 여성 해방의 이상과 실제,” 『한민족문화연구』, 제8집(2001).
 임옥규,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문학에 나타난 여성·모성·조국에 양상—『조선문학』(1997~2006)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18호(2007).
 정성장, “김정일 시대의 정치체제 특징 연구”(통일부 2003년도 정책연구과제, 2003).
 진희관, “북한에서 ‘선군’의 등장과 선군사상이 갖는 함의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8집 1호(2008).
 최영석, “여성 해방과 국가적 기획—북한문학에서의 여성 재현,” 『현대문학의 연구』, 제23호(2004).

A Study on the Figuration of Women in North Korean Farm Villages in the Military-oriented Age

Oh, Chang Eun(Korean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This thesis has been planned to examine how the ideology of literature in the military-oriented age has been embodied in ‘the figure of North Korean farm village women.’ To that end, I attempted to examine the figuration of women represented in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2000s by connecting ‘March of Suffering’ with ‘Military-oriented Age.’ Painful memory of ‘March of Suffering’ gave birth to obsessive attitude toward the enhancement of farm village productivity. So North Korean farm village women in the 2000s are embodied as those who realize the ‘Military-oriented Age’ and perform the tasks of reinfor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s agricultural workers. In many cases, those women agricultural workers carry out the tasks through the help of discharged soldiers o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In this sense, farm village women in the military-oriented age are embodied as assis-

tants of the 'Military-oriented Age' who have to depend o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although they are leading figures of enhan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North Korean literature in the 2000s, the 'Military-oriented Ideology and Military-oriented Politics that are presented as the ideology of the 'Military-oriented Age' 'are not prominently revealed, but the painful memory and fear of 'March of Suffering' deeply overhang. This memory of fear is realized as obsession on 'Productivity First.'

In Kim Seong-hee's "the Echo of Ryongsan" or Yoon Gyeong-chan's "Expanding Land," the landscapes of farm villages where expansion of productivity that should be accomplished by the women's initiative are represented. These people are placed in the realities of obsession that is the reinfor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through the painful memory of the 'March of Suffering.' Only in Jo In-hyeong's "A Memory of a Woman" published in 2005 it was possible to make reminiscent descriptions on the 'March of Suffering.' What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ose women figures is the fact that women are agricultural worker in the 'public world' but their homes and love affairs as their 'private world' are suppressed.

The noteworthy literary work is Kim Yeong-seon's "Flames." In this work, Euna appears on the scene as a daughter of Ryu Geun-hyeok who was given the title of an efforts hero and is embodied as a prominent character who newly rehabilitate 'Saemgol Village.' Euna is a discharged soldier and the women group leader who represents new generation. The figuration of Ryu Euna who brings about more prom-

inent achievements than her father's, while meeting her father's wish, symbolizes the ideology of the North Korean society

The public world in which the private world is not guaranteed reveals indirectly the abnormality of human life. It is the attitude that attaches greater importance to totality than to the individuals' secret emotion, and reveals the fact that 'private freedom' is not guaranteed. The fact that the suppression of private life is, in many parts, based on the memory of fear about 'March of Suffering' testifies unhappy realities that the North Korean society faces.

The realities in which the past is mobilized as the driving force of the present are degenerative. Normal daily life is possible when it is possible to project the present and the future based on the realities, i.e. to objectify oneself from the past. In this sense, the discourse called 'Military-oriented Age' is the discourse arrested by the past called 'March of Suffering', and the discourse that testifies that the North Korean society is in a state of emergency to overcome a kind of crisis.

Keywords: military-oriented age, march of suffering, North Korean women, North Korean farm villages, North Korean literature, North Korean novel